

이윤재 숭실대 교수

## 〈논문 초록〉

코로나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경제학 측면에서 살펴보고, 성경경제학(biblical economics)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이번 코로나가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서 미치는 영향은 과거의 양태와는 매우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장률 급락과 함께 일자리가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빈곤층이 증가되어 경제적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언택트 경제로 인해 국민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뿐만 아니라 경제 운영방식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런 변화에 대하여 성경경제학 관점에서 이해관계자자본주의, 경제적불평등, 경제민족주의, 그리고 큰 정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제어: 코로나, 언택트경제, 성경경제학, 경제적불평등, 경제민족주의, 큰 정부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E69, Z12

## 1. 들어가는 말

작년 말 중국 우한에서 촉발된 코로나19 (이하 코로나)는 단시간에 전 세계 경제를 붕괴시키는 힘이 막강하다는 점에서 과거의 경제위기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번 코로나는 경제활동(거래)을 멈추게 만들어 총공급과 총수요가 동시에 위축되는 복합불황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경기 회복 시기를 놓고 V자형, U자형, L자형 등에 대하여 논란이 많다. 경제회복 시기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1) 본 논문은 한국기독교경제학회 학술지(Oikonomia)에 투고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한 것임을 밝힘.

기존의 경제운영 방식이나 경제활동 자체가 상당히 바뀌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한다. 그만큼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스포츠, 종교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이번의 코로나 충격은 과거의 경제위기 충격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 (Ludvigson, Ma, and Ng, 2020, 다니엘 슈텔터, 2020, 제이슨 생커, 2020, 리처드 볼드윈 외, 2020 참조). Ludvigson et al (2020)에 의하면, 코로나의 충격은 장기간에 걸쳐 경제에 악 영향을 끼칠 것이며 자본 손실보다는 노동력 상실 (일자리 감소)로 나타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코로나의 충격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설명 한 후에 성경경제학(Biblical economics)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코로나가 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성장률, 일자리 감소 및 코로나 이후의 회복에 대하여 검토한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성경경제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마지막 절에선 시사점 및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 2.1 경제성장률 급락<sup>2)</sup>

국경이 봉쇄되어 사람과 물자 이동이 제한되어 경제적 거래가 단시간에 급격하게 줄어들어 기업의 생산에 큰 타격을 입었다. 불과 서 너달 만에 대부분이 국가에서 경제가 역성장 했다. 금년 1/4분기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3\%$ 로 떨어졌으며, 중국  $-6.8\%$ , 미국  $-4.8\%$ , EU  $-3.8\%$ 를 기록했다. 우리의 주요한 수출시장인 중국, 미국, 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마이너스 성장을 이뤄 우리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코로나 감염자가 멈춰야 하는데, 최근에도 (7월초 기준) 감염자가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확진자가 1천만을 넘었다. 특히 미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제2차 팬데믹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재조정하여 더 낮춰 잡고 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1.2\%$ 에서  $-2.1\%$ 로 떨어뜨렸다. OECD도 코로나가 재 확산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5\%$ 로 추락할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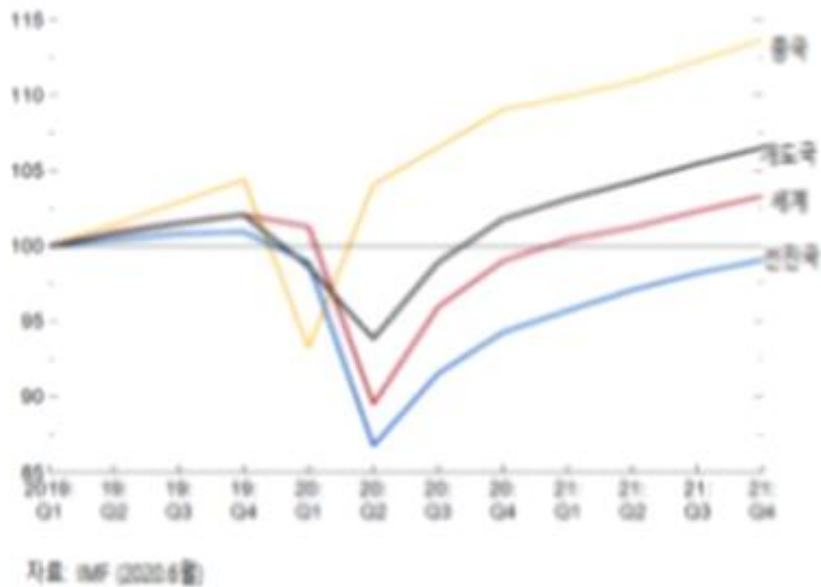
---

2) 이윤재 (2020, a,b) 컬럼에 실린 내용 일부를 참조했음.

예측했다.

국제통화기금의 최근 추정치(IMF, 2020 6월)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금년 2분기에 바닥을 지난 다음에 서서히 완만하게 회복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최근의 코로나 확산 추세로 보서는 희망 사항일 가능성이 높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선진국이 신흥개도국에 비하여 더 큰 손실을 입었으며 회복속도도 더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이 가장 빨리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다음이 신흥개발도상국 (중국 제외), 전 세계 그리고 선진국 순으로 회복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림 1 참조).

[그림 1]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 전망치 (2019.1분기 = 100)



## 2.2 일자리 급감

코로나 감염방지를 위한 통제는 실물경제에 치명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부분이 고용부문이다. 아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로나 감염자가 폭증하고 난 후에는 취업자가 급감하는 관계를 보여준다.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한 3월과 4월 동안에 취업자도 급격하게 감소되었음을 보여 준다 (그림 2 참조). 5월에는 감염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그에 따라 취업자 감소도 둔화됨을 보여 준다<sup>3)</sup>.

[그림 2] 코로나 감염자 증감과 취업자 증감 관계



주: 감염자 수 (명), 취업자 증감 (천명)  
 자료: 감염자수는 질병관리본부, 취업자는 통계청 자료 활용

지난 5월 고용통계 (전년동월대비 기준)에 따르면, 취업자가 39만2천명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4월 취업자 감소 47만6천명에 비하면 감소세가 약간 둔화되었다. 그러나 일거리가 없어 쉬는 일시휴직자가 68만5천명이나 증가되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일시휴직자 중 상당수는 실업자로 전락될 것이다. 비경제활동인구도 55만5천명이나 증대되어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3. 성경경제학(biblical economics)적인 접근

코로나로 인해 생명의 위협과 경제적인 고통을 받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경제운영 방식을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다. 코로나로 촉발된 경제위기에 대응하면서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게 되었다. 먼저 하나님의 경제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경제학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경제 운영방식은 성경 곳곳에 내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창세기에 소개되는 청지기정신 (stewardship)과 문화명령 (창세기1:28) ‘다스리라’에 기초하고 있다<sup>4)</sup>.

3) 5월 취업자 감소둔화는 코로나 감소 추세에도 기인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고용유지 지원정책 (고용유지 조건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기인한 바도 있을 것이다. 추후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 3.1 주주자본주의 vs 이해관계자자본주의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국가들(OECD)은 기독교 문화에 기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경제시스템은 소수의 투자자(자본가)의 이익추구를 중심으로 한 주주중심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쪽으로 치우쳐 졌다. 경제 제일의 운용원칙은 효율성 극대화를 통한 주주(투자가 및 자본가)의 이익추구였다. 그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불평등 해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축적된 잉여이익의 대부분을 자본가(투자가)들이 독식하려하고 이를 정당화하려는 세력과 이에 반발하는 세력 간에 논쟁이 심화되었다. 지난 1999년에 시애틀에서 일어난 글로벌화 반대 시위<sup>5)</sup>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학계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Piketty, 2014, 2017, 스티글리츠, 2013). 또한 이런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수년전부터 다보스 포럼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금년(2020) 다보스 포럼의 주제는 '결속력 있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 for a cohesive and sustainable world)'이었으며,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이었다. 기존의 주주이익을 중시하는 주주중심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가 한계점을 드러내 새로운 자본주의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작년(2019) 8월에 주주중심자본주의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저명한 기업인들의 모임인 BRT(business round table)에서 기업의 목적이 더 이상 주주의 이익추가가 아님을 선언하고 "고객에 대한 가치 제공, 종업원에 대한 투자, 협력 업체와 공정하고 윤리적인 거래,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장기적인 주주 가치 창출 모두가 기업의 필수적인 목적"이라고 선포했다. BRT 회원 188명 중에 181명이 서명했으며,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를 비롯해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애플의 팀 쿡, 제너럴 모터스(GM)의 메리 바라 등이 포함되었다<sup>6)</sup>. 경제학계도 지속적인 성장(sustainable economic growth) 및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에 대한

4) 이윤재, 「성경속의 경제학」, 2004, 숭실대학교 출판부 및 숭실대 경제학과에 개설된 '성경과경제학' 강의노트(2019 ~ 2020) 참조.

5) 1990년대 후반 세계화를 상징하는 세계무역기구(WTO) 3차 각료회의가 미국 서부의 시애틀에서 1999년 11월 30일에 개최하기로 되었는데, 시위대들이 세계 각료들의 WTO회의 입장을 막았다. 시위대들은 개막식을 무효화시키고자 12월 3일까지 시위를 지속하였으며 결국 회의가 결렬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뉴욕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시위가 일어났으며 1:99라는 슬로건으로 빈부차의 상정을 보여줬다.

6)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1/2019082100174.html](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1/2019082100174.html) 참조.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애쓰모글루 2012, ILO, 2012, OECD 2013, 홍장표 2014, 변양규 2015, 표학길 2016, 이윤재 2017 등 참조).

### 3.2 비대면 및 비접촉의 언택트 경제 vs 취약계층 보호

언택트 시대가 도래되면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언택트 시대가 본격화 되면 취약계층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그들의 일자리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해 소득에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일천한 상황이지만, 일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에 소득불평등에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한국은행, 2020 a).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데, 이때 취약계층이 주로 많이 고용되어 있는 대면 서비스업종에서 피해가 커 이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게 되어 소득감소로 이어 질 것이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대면 서비스 업종 (여행, 숙박, 음식, 도소매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피트니스 같은 다양한 개인서비스)에서 큰 타격을 입어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또한 기업도 고용감축을 단행하였는데, 이때 임시직 및 일용직, 아르바이트, 단기 계약직 등과 같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잃어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겪고 있다.

한국은행(2020,b)에 의하면, 코로나로 경영난을 겪게 되어 인력을 감축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3.0%인데,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9.7% 인데 반해 서비스업의 경우 19.3%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 업종에서 더 큰 피해를 입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향후에 코로나가 재확산 될 경우 기업이 인력을 줄일 계획이라는 비율이 27.1%로 상당히 높게 나왔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 될 경우 기업체 3곳 중 한곳은 인력감축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고용불안정 계층인 아르바이트, 임시직, 단기 계약직 등 비정규직 등이 먼저 해고당할 것이다. 이로 인해 취약계층의 증가로 경제적 불평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2020,a)도 코로나가 경제적 불평등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Adams-Prassl, 2020, Koczan,Plekhanov,2020 참조).

성경은 취약계층을 보호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현대 자본주의에 맞게 적용시키는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나라에서(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보조금을 주었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이다. 기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소득을 증진시켜 주는 것이 지속가능하고 성경적 경제 원리와의 부합된다고 본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노동(일)을 강조하고 있으며,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와주어 빈곤문제를 해결하라고 하고 있다. 신명기 15:11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라고 선포되었다.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있을 것이며 그들에게 손을 펼쳐서 도와주라는 것이다.

### 3.3 경제적 불평등 vs 건강불평등

최근 Kim, Jaiyoung et al (2020)에 의하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소득불평등이 건강안전에 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경고를 주고 있다 그런데 이 연구는 외국이 아닌 우리나라의 사례라는데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Kim et al (2020)는 우리나라 대구지역의 코로나 확진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기초로 소득과 연계하여 코로나에 걸릴 확률을 통계적으로 추정분석 했다. 의료보험료는 소득수준에 비례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료 수준과 코로나 걸릴 확률 간에 관계를 통계치 및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 그런가에 대한 정밀한 후속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겠지만, 연구자들은 고소득자 일수록 안전하고 양호한 위생시설에서 거주하고 근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자가 일하는 근무환경은 독립적인 공간이나 넓적하여 물리적 거리두기를 잘 유지할 수 있는데 반하여 저소득층의 경우는 밀집된 공간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전염될 확률이 높은 결과로 해석된다. 그동안 감염자가 밀집되고 열악한 근무공간에서 많이 나왔다. 예를 들면, 밀집된 공간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요양원등 복지시설 등에서 감염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코로나는 경제력과는 무관하게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것(균등한 확률로 평등하게)으로 인식되었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만일 이것이 진실이라면 우리 사회에 큰 숙제를 던져 준 셈이다. 경제적 불평등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 보건 등 생명안전문제와도 연계된 생존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은 여러 면에서 보편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질병이나 전염병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득이 극히 낮은 경우엔 영양실조에 걸릴 확률도 높아 면역력이 약화되어 전염병에 취약 할 것이다. 교육이나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아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낮아 저소득 함정에 빠져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 확대 및 강화를 통한 일자리 제공이 근원적인 문제 해결책의 하나이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나라에서(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 긴급재난 지원금 같은 것을 실행했다. 이제는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김희권, 2015 참조).

### 3.4 경제민족주의 (인종주의적 편견) vs 나그네 보호

코로나가 한창 일 때 각국은 국경을 봉쇄하고 이동을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한국, 일본 등 아시아를 거쳐 미국,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급기야는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자연스럽게 각국은 자국민 보호 우선주의에 치우치게 되었다. 그리고 유럽, 미국 등에선 아시아인들에 대한 질시, 언어 및 신체 폭력이 나타나 인종주의적 편견으로 치닫고 있어 민족주의에 불을 지르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경제민족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미국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아담 S. 포센은 팬데믹이 불러올 또 다른 재앙은 경제민족주의이라고 경고한다. 각국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국경을 폐쇄하고 지역을 봉쇄하고 각자 도생의 길을 걸었다<sup>7)</sup>. 코로나 감염에 두려운 나머지 내 가족, 우리 마을, 우리나라 사람 등 나를 중심으로 한 가까운 사람들만 챙기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했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민족주의가 생성된다. 이런 분위기가 이민자들에 대해 배타적인 자세를 취하며 차별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민에게 취업기회를 늘려 준다는 미명 하에 외국인에 대한 취업비자까지 제한하는 외국인 (이민자) 배타적인 정책을 노골적으로 실행하고 있다<sup>8)</sup>. 이런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의료장비, 달러 유동성, 지역 시장, 수출 기회 등 자국민 이익 우선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가난한 나라를 위한 원조에는 인색하고 자국민을 위해 자국 내에 비축하려는

7) 한국이 예외적으로 봉쇄라든가 국경 폐쇄를 안하고 철저한 방역 및 감염자 검사 및 치료시스템을 통하여 코로나를 통제하여 K-방역이란 칭찬을 들었다. 그러나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막아 국경봉쇄와 같은 결과가 되었다.

8) 미국의 취업비자 제한으로 실리콘 벨리의 벤처기업들이 항의하고 있다. 구글, 애플, 아마존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조선일보 (2020.6.26 기사 참조)



움직임이 강했다. 심지어 마스크까지 중간에서 가로채기까지 일어난다는 보도가 있었다. 아담 포센은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제민족주의가 생성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볼드윈, 마우로, 2020, Part 3 참조). 경제민족주의 하에선 국제간 의료정책 공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간 경제정책 공조 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민배척 움직임이 코로나로 인하여 확산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민으로 형성된 미국에서조차도 이민배척 운동 및 인종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경제민족주의는 성경의 기본 정신에 비취볼 때 지극히 반 성경적이다. 성경은 일관되게 나그네 (오늘날 이민자, 정치적 망명자 등)약자를 보호하라고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민자들은 자국민에 비하여 각종 불리를 당하고 있는데 코로나를 핑계로 차별적인 정책은 비성경적이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도 한때 나그네 (애굽의 종)였음을 잊지 말라고 상기시키고 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등도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이민자(나그네)였음을 성경은 상기시킨다. 출애굽기 22:21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이 외에도 성경은 군데군데 나그네를 압박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출23:9, 신10:19, 시146:9 등).

### 3.5 Big Brother 큰 정부 vs 성경적 정부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시키기 위하여 정부의 강력한 행정력이 동원되고 개입이 뒤따랐다.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정부에 의한 개인의 사생활영역 침범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보통신(ICT)기술의 발달로 전 국민의 사적인 활동까지 관찰할 수 있는 감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 CCTV를 통하여 안면인식 기술로 전 국민의 사적인 활동을 감시할 수 있게 되어 감시권위주의 국가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부득이하게 사적인 정보 공개가 용인되었다. 감염자 개인의 상세한 이동경로가 처음에는 공개되었다가 최근에는 개인정보를 위하여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개인의 신용카드 조회, 스마트폰 위치 추적 등을 통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처음에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대한 이슈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큰 논란이 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의 노출이 빈번해짐에 따라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유럽에선 이 부분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미국에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항의하는 (반대 시위까지 벌임) 모습을 보였다. 미국의 경우는 행정명령(전시물자동원명령)까지 발동하여 민간기업에게 마스크, 인공호흡기 등을 만들라고 명령하였다. 코로나 이전에는

상상하기 힘든 정부의 개입이다.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도 한번 커진 정부의 기능은 쉽게 되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점차 big brother의 정부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파탄을 회복하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재정팽창을 관성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여파로 전국민을 상대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과 반 년만에 3차례에 걸쳐 대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였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니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코로나 이후의 경제상황이다. 코로나 여파로 경기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부의 확장적 지출정책도 상당기간 지속 될 것이다. 경기 침체의 여파로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점차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 별다른 저항 없이 팽창된 큰 정부가 코로나 이후에도 관성적으로 큰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큰 정부는 개입과 규제를 초래하여 민간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 부작용(예: 각종 규제와 구축효과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sup>9)</sup>, 각종 규제로 기업활동에 애로(투자위축)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 이후에도 한번 커진 정부의 기능은 쉽게 되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논의 및 사후대책이 필요하다. 그럼 성경에서는 큰 정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스라엘 국민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부작용을 경고 한 바 있다. 사무엘상8장 11~17절 이하에서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십일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 떼의 십분의 일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

9) 정부의 과도한 국제발행으로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은행의 채권안정화기금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을 잠재우지만 근원적인 방안은 못된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자금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채권시장에서 필요한 때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가 나타나기 시작 한 것으로 보인다.

종이 될 것이라”

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개입을 하며 국민 부담(병역 부담 및 재정적인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 경고다. 현 정부도 고용창출을 위한다고 정부 및 공공 부문에서 빠른 속도로 공무원을 증원시키고 있는데 모두 미래의 세금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공무원이 증가될수록 간섭과 규제가 늘어날 것이다.

성경은 명시적으로 정부의 크기 (큰 정부 vs 작은 정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용상으로 봐서 큰 정부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옥스퍼드선언(1990)<sup>10</sup> 맨 마지막 섹션인 “D. Freedom, Government and Economies”란 소제목으로 정부의 역할 및 범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정부의 존재 이유를 인간의 반항적인 성품을 우려하여 공동체를 돌보고 보호하기 위하여, 또 다른 이유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조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로마서 13:1,4; 시편 72:1 참조).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유를 지켜주며 기본적인 안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의 지배하에 작동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부는 경제적 효율성이 잘 작동되도록 주의해야 하며 정부의 활동과 크기에 적절한 제한적인 조치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옥스퍼드 선언 원문은 아래와 같이 선포하고 있다. 즉, “*Government must also have regard for economic efficiency and appropriately limit its own scope and action*”으로 명시하고 있다. 옥스퍼드 선언에서도 큰 정부에 대하여 경계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비대한 정부는 민간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경제역동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활동의 영역의 크기나 행위에 대하여 적절하게 자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정부 스스로가 그런 절제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 동안에도 큰 정부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공동체의 안전문제에 묻혀 이제는 감시적이며 권위주의적인 'big brother 정부'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분위기이다. 성경의 핵심주제인 ‘하나님 나라’는 힘이 세고 권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역설적으로 힘이 없고 낮아지고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한다. 예수님의 모습에 견주어

---

10) 옥스퍼드 선언은 전문(preamble)에서 기독교 신앙과 경제학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 1990년 1월에 세계 각지에서 100명 이상의 신학자, 경제학자, 윤리학자, 발전 전문실무자, 교회 지도자, 기업 경영자들이 모여서 신앙과 경제(경영)문제에 관해 논의하고 나갈 방향에 대하여 선포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전문, 창조와 창지기 직분, 일과 여가, 빈곤과 정의, 자유, 정부 그리고 경제학,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경경제학 (biblical economics)에 중요한 문서이다.

보면, 국민을 위하여 봉사할 정부는 힘 있고 권위적인 소위 큰 정부보다는 겸손하고 스마트 (smart)하고 효율적인 정부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운 정부일 것이다. 민간부문(기업, 가계 등)의 경제활동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기는 정부라야지 민간부문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명령하는 정부는 국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힘들다. 다만 정부는 시장경제의 실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예: 가난, 빈곤, 취약계층, 독과점, 환경, 국방, 치안 및 보건안전, 위생 등)을 보완하고 교정해줄 수 있는 필요한 조치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결론 및 코로나19가 주는 시사점

이번 코로나는 단순한 전염병을 넘어서 우리 삶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성장률이 급락되고 일자리가 일거에 많이 소멸되는 현상이 세계 도처에서 관찰되고 있다. 이런 엄중한 경제 위기에서 각국은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막대한 재정지출과 더불어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 동원되는 등 각국은 경기회복 정책과 함께 코로나 감염차단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코로나로 인해 경제 전반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하여 성경경제학 (biblical economics) 관점에서 살펴봤다. 즉,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반성 및 향후의 전망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중심자본주의에 대한 논쟁, 효율성 중시에서 안전성도 중요하다는 점이 생명을 중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성경의 기본철학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또한 비대면 (언택트)경제로 인한 취약계층의 증가와 경제적 불평등 이슈, 경제민족주의에 대한 우려, 그리고 big brother 형의 큰 정부에 대한 우려를 성경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봤다.

코로나 시대에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경제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들에 대한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성경에 나타난 기본적인 경제원리를 잘 해석하여 정책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경경제학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교육도 뒤 따라야 한다.

## 참고문헌

- 김경일, “증가하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법칙은 변하고 있는가” 중소기업인 희망재단 특강자료 (mimeo), 2020.7.1
- 김회권, “기본소득의 논의의 성경적 토대,” 「복음과 상황」, Vol. 294, May 2015.
- 배중태 외, 「사람중심 기업가정신」, 더메이커, 2018.
- 변양규, “임금주도성장의 비현실성,” 한국경제연구원, mimeo. 2015.
- 스티글리츠, 「불평등의 대가」, 열린책들, 2013.
- 애쓰모글루(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최완규(역), 시공사, 2012.
- 이윤재, 「성경속의 경제학」, 숭실대학교출판부, 2004
- \_\_\_\_\_, “신고용정책의 입법 정책과제: 현재와 미래,” 희망중기포럼발표자료, 2017.7.7.
- \_\_\_\_\_, “코로나가 한국경제와 교회에 미칠 영향,” 「좋은나무」,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0.6.1 (a)
- \_\_\_\_\_, “코로나가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 한국기독교공보사, 2020.6.24 (b)
- 표학길 (2016), “소득주도성장과 이윤주도성장,” 「한국경제의 분석」, 22권2호
- 홍장표, “한국의 노동분배율 변동이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임금주도 성장모델 적용가능성,” 「사회경제평론」 43호, 2014.
- 다니엘 슈텔터, 「코로나노믹스」, 도지영(역), 더숲, 2020.
- 리처드 볼드윈, 베아트리스 마우로(편저), 「세계 석학들이 내다본 코로나 경제전쟁」, 매일경제신문 (편역), 2020.
- 제이슨 생커, 「코로나 이후 세계」, 박성현(역), 미디어 숲, 2020.
- 토마스 피케티, 「21세기 자본」, 장경덕(역), 글항아리, 2014.
- \_\_\_\_\_(편저), 「After Piketty」, 유엔제이 (역), 윌리시즈, 2017.
- 한국은행, “코로나 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 한국은행 조사국, 2020.6.29 (a)
- \_\_\_\_\_, 「지역경제보고서」, 2020.6 (b)
- Adams-Prassl, A., T. Boneva, M. Golinard, and C. Rauh, “Inequality in the impact of the Coronavirus shock: evidence from real time survey,” IZA discussion paper No.13183, IZA. 202.
- Blanchard, O., “Is there deflation or inflation in our future?”, <http://voxeu.org/article/there-deflation-or-inflation-our-future>.
- Brynjolfsson, E., and A. McAfee, “The second machine age: work, progress, and prosperity in a time of brilliant technologies,” W.W.Norton & Company, 2014.
- Furceri, D., L. Prakash, J.O., Ostry, and P. Pizzuto, “Covid-19 will raise inequality if past pandemics are a guide,” May 2020, in <http://voxeu.org/article/covid-19-will-raise-inequality-if-past-pandemics-are-guide>.
- Goodhart, C., “Inflation after pandemic: Theory and practice,” <http://voxeu.org/article/inflation-after-pandemic-theory-and-practice>
-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ne 2020.
- Kim, Jaiyoung, D.W.Kim, K.I.Kim, H.B. Kim, J.H.Kim, Y.G.Lee, K.H.Byeon, H.W.Cheong, “Compliance of antihypertensive medication and risk of Coronavirus disease 2019: a cohort study using data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Journal of Medical Science, June 29,

- 2020, 온라인 (2020.6.19, <https://doi.org/10.33461/jkims.2020.35.e232>).
- Koczan, Z, and Plekhanov, "The Covid-19 shock: employment in middle-income economies," VoxEU, CEPR policy portal, 2020
- Jorda, O, S. Singh, and A. Taylor," Long-run Economic Consequences of Pandemics", FRB of San Francisco, Working Paper 2020-09, March 2020.
- Ludvigson, S, S. Ma., and Ng, S., "Covid19 and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costly disasters," NBER working paper 26987, April 2020.
- OECD, "Wage - led Growth: An Equitable Strategy for Economic Recovery." 2013.
- Onaran and Galanis," Is aggregate demand wage-led or profit-led? " ILO, 2012.
- Storm, S. and C.W.M. Naastepad, "Wage-led or Profit Supply: Wages, Productivity and Investment," ILO, 2012.
- Susskind,D., "Re-thinking the capabilities of machine in economics," Oxford University discussion paper No.825, 2017.

논 찬 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코로나19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성경경제학적 접근	발표자	이윤재
		논찬자 (소속)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이윤재교수님의 본 논문은 현재 진행형인 사안에 대한 고민거리를 ‘언박싱’한 점에서 시의성이 매우 높은 논의입니다. 코로나19 대응책이 한국경제를 포함한 세계경제에 지대한 파급영향과 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동인을 유발시키리라는 점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공감할 것입니다. 설령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중국과 한국의 경제성장률의 회복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여겨지더라도 그 파급영향과 충격이 약화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을 계기로 주주중심자본주의를 재성찰하여 하나님-인간-자연의 관계성을 형성하는 생명 중심의 성경적 원리에 근거한 경제와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창출의 기대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경제적 불평등도와 불평등 구조와 보완 대책에 대한 진단과 논의에는 학술적, 정책적 쟁점이 있지만 불평등의 해소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 경제학이 세속 경제학을 가장 포괄적으로 주도할 수 있고, 세속 경제학이 성경 경제학을 가장 친밀하게 수용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교수님께서 고찰하신 자본주의의 본질, 취약계층 보호, 경제적 불평등, 경제민족주의, 정부의 역할 등의 주제는 각각 오래된 논의 주제이지만 코로나19를 통해 새롭게 진지한 논의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첫째, 이해관계자중심자본주의는 기업 경영의 측면뿐만 아니라 사적/사회적 비용과 편익, 생산성과 자원배분의 측면에서도 논의를 확장하고 심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주중심자본주의의 폐기라기보다는 보완적 구조로써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취약계층의 보호는 경제활동 참여 기회의 확대 차원과 복지의 확대 차원을 보호 대상과 방식에서 구분하는 경제정책 운용의 원칙과 효과에 대한 연구의 심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정책도 필요하지만 자본주의의 본질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어려우므로 소득 불평등의 영향력을 완충시킬 수 있는 사회경제적 안전망에 대한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2017년 우리나라 다문화 결혼 건수는 전체의 8.3%, 다문화 가구수는 전체의 2.1%를 차지하며 증가세를 나타내므로 경제 민족주의를 점진적으로 초월할 수 있는 난민 및 이민의 문제를 경제학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다문화 가정의 구조적 격차는 경제적, 문화적, 생활방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육, 일자리, 사회적 갈등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예방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과 범위의 확대에 의한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는 민간투자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자원 배분과 순환을 제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37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	국립목포대학교
----------------------	---------